

터널의 끝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정재영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재학 중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최종합격을 하고 상상만 하던 합격수기를 적는 날이 오다니 감격스럽습니다. 합격자 백 명에게 공부방법을 물어보면 백 가지 대답이 나올 정도로 공부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 수험생활에 비추어 제가 경험한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하였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법을 찾아가심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득점 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II. 제1차시험 준비

1. 개괄

저는 진입 첫해에만 과목별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이후로는 혼자 문제를 풀면서 PSAT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12월, 1월은 2차 준비와 병행하였고 2월부터는 1차에 올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스케줄은 ‘12월: 과목별 워밍업, 헌법 기출문제’ - ‘1월: 강사 모의고사 풀이, 자료해석 기출변형, 헌법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 ‘2월: 강사 모의고사 엄선문제,

행입시 기출문제 5개년, 헌법 최신판례 특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스테디에 참여하거나 꼼꼼히 기출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느껴져서 별도의 스테디 없이 혼자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 실수한 부분은 무엇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오답풀이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2주에 한번 정도 응시하였는데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실전연습점 응시하는 자체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2. 과목별 준비방법

(1) 헌 법

헌법은 60점 기준 p/f 과목이므로 과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식 과목인 만큼 2차 과목들과는 달리 소위 '양치기'가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시생이 아닌 이상 헌법 강의 재수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초시때만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이후로는 기본서 회독 없이 기출문제집 풀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2월, 1월 동안 기출문제집 1회 풀이 후 틀린 문제 중심으로 시험 전까지 2회 더 풀이하였습니다. 또한 강사모의고사 문제풀이 및 무료 최신판례특강 수강을 통해 판례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2주전에는 기본서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암기가 필요한 통치구조 파트의 표 부분을 위주로 발췌해서 암기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 문제들이 점점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빠르게' 풀기 위해 일치부합형 문제의 경우 지문의 반절 내지 3분의2 정도만 읽고 선지로 내려가 답을 찾아보고 그래도 답이 없는 경우 끝까지 문제를 읽는 방식을 체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우선 가독성을 높여 실수를 줄이기 위해 키워드에 ○△× 등의 표시를 하였고, 과학지문이나 역사지문 등에서 사건의 흐름이 주어지는 경우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 를 사용하여 도식화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정답률이 낮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추론, 논리퀴즈 등)은 우선 건너뛰고 자신있는 유형부터 먼저 푸는 방식이 주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2월에는 논리퀴즈 문제집 한권을 풀며 위밍업을 하였습니다. 1월부터는 강사 모의고사를 풀었고 추가적으로 엄선 모의고사를 200제 정도 풀었습니다. 2월에는 행입시 5개년 기출문제를 위주로 준비하여 기출의 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개인적으로 취약유형이라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계산 속도 등을 끌어올리는 것에 한계를 느껴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계산이 복잡한 선지는 건드리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선지를 골라내는 눈을 키우는 방향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독성을 높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표 경계선 덧

긋기, OX 표시 활용, 표에서 연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 표시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선지의 판단은 최대한 보류하고 어렵산만으로도 판단 가능한 선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더불어 한 문제에 3개 이상의 자료가 주어지거나 신유형의 문제인 경우 우선 건너뛰는 방식으로 시간을 세이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2월에는 강사의 기출변형 500제 중 절반정도를 풀며 워밍업 하였습니다. 1월에는 기출변형 문제집 풀이 완료 및 오답 중심으로 한번 더 풀이하였고, 강사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2월에는 행입시 5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기출의 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 상황판단

최근 상황판단 과목은 이전과 달리 일치부합형 문제의 비중이 줄고 계산형, 퀴즈형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계산형, 퀴즈형은 기본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일치부합형, 법조문형 등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조문은 조 단위로 경계선을 긋고, 각 조를 읽은 후 선지를 판단하되 단서조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일치부합형은 언어논리와 마찬가지로 가독성 표시 및 일부 독해 후 선지 판단의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한편 퀴즈형의 경우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중심으로 해결한다면 효율적이고 정확한 풀

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2월에는 유형별 기출문제 200제를 통해 워밍업을 하였습니다. 1월에는 강사 모의고사 및 추가적으로는 강사의 엄선모의고사 200제 정도를 풀었고, 2월에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행입시 5개년 기출문제를 통해 기출의 감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Ⅲ. 제2차시험 준비

1. 개 괄

각 2차과목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은 일반론-판례-포섭, 경제학은 답도출-그래프-함의, 행정학 정치학 등 논문과목은 개념-특징-사례 를 들 수 있겠습니다. 2차시험을 여러번 경험해보고 나니 각 요소들 간 부족함 없이 균형을 이룰 때 합격점에 도달한다고 느껴졌기에,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요소가 부족한지를 꾸준히 체크하시고 이를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19년도까지는 모든 순환강의를 수강하였고 매일 강의진도 따라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 채우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 순환강의는 수강하지 않았고 혼자 교과서를 읽는 등 독학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독학으로 채워지기 힘든 부분은 스티디나 단기 과외를 통해 보충하였는데 이하에서 과목별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과목별 준비방법

(1) 행정법

행정법 답안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일반론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풍부한 포섭을 위한 글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신 판례가 문제로 출제되는 최근의 기출경향을 고려할 때 논점일탈 방지의 측면에서 역시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합격한 해에 들어서야 판례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강사들의 순환강의 따라가기와 핸드북 암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판례학습이나 암기를 해본적이 없었고 성적 역시 40점대로 비교적 저조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판례학습 및 암기의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시간상의 한계로 예년보다 답안작성연습이 비교적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60점대의 점수를 획득하는 등 단기간에 행정법 점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방법으로는 최신 판례내용 및 기타 일반론을 보충한 핸드북을 한글파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암기하였고, 친구들과 판례 스터디(중요문구암기, 쟁점 및 내용 숙지)를 3순환 기간 내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순환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으나 12월-1월동안 PSAT 준비와 함께 단기 합격생 과외를 수강하여 답안방향성 및 득점포인트를 익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법은 시간을 들인만큼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반드시 점수가 향상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최근 들어 정답을 맞히는 것 뿐만 아니라 서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연습과 더불어 개념이나 합의, 시사점도 충분히 익혀두시어 실전에서 풍부하게 서술해준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때 황종휴 강사의 예비~2순환을 수강하였으나 복습을 게을리해서 경제학 개념 잡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시 때에는 황종휴 강사의 기본서인 트리니티 미거시를 서브노트 형태로 정리하였는데(사실상 필사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다소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제학 전반에 대한 체계가 잡힌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황종휴 강사의 연습책을 3번 정도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였고, 부족한 문제는 김진욱 강사나 윤지훈 강사의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황종휴 강사의 트리니티 완성하기를 진도에 맞춰 풀었습니다. 또한 암기할만한 개념이나 합의를 서로 물어봐주며 서술 측면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문제집은 풀지 않았으며 3순환 기간동안 트리니티 완성하기를 3번 정도 반복하여 풀면서 시험 직전에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 각 과목당 마지막 확인이 필요한 20문제 정도만 분철하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경제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일반행정 직렬이신 분들은 국제경제를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경이 매년 1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수준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국제경제 준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기출경향상 심화수준의 문제까지 출제된 금융론에 비해 무역론은 비교

적 기본단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정치학

정치학은 논문과목 중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하고, 수험생 간 점수격차도 어느 정도 존재하여 2차 합격을 견인할 수 있는 과목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리적인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단순 나열한 답안은 최대한 지양하고, 많은 양의 이론적 내용을 적지는 않더라도 이론-적용-사례가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답안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편 정치학은 과목 특성상 학습범위의 방대함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총론 등 단행본이나 강사교과서, 서브노트 등을 참고하여 학습범위를 설정하되, 실전에서 불의타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19년까지 김희철, 신희섭, 임진성 등 다양한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0년부터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도란동이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하여 강사자료 및 단행본, 논문자료를 보충한 서브노트를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기출문제 답안작성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답안을 비교하면서 제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행정학

행정학은 개념과 사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념

측면에서 행정학 역시 여타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암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답안의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의 대부분이 암기가 부족한 경우였기에 서브노트 등을 활용하여 배경, 개념, 특징 등을 꼼꼼히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년 문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답안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의성이 높은 주제의 경우 정부 부처 공식블로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기사 등을 활용하여 중앙-지방-민간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 재시때는 강사의 강의 수강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였는데 행정학의 매력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습니다. 20년도 이후 강의 수강 없이 '인간과 조직'이라는 교과서를 읽으며 서브노트를 정리하였고 3순환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자료들 및 강사들의 논문자료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행정학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기출답안 작성 스터디를 구성하여 답안 스타일을 점검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는 방법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5) 정보체계론

저는 초시때부터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보체계론은 분량이 많지 않고, 행정학과 맥을 같이 하는 학문이라는 장점이 있으

나,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해야 하는 점과 타 선택과목에 비해 비교적 고득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징을 고려할 때, 행정학적 글쓰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나 선택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단기간의 암기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론 고득점을 위해서는 시의성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 및 다양한 최신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익혀 답안지 곳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사례까지 준비하셔서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정보체계론의 학습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 준비 등이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20년까지 3순환 기간에만 정경호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암기 역시 시험 직전인 정보체계론 3순환에만 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으나 합격자 단기과외를 수강하여 답안작성 포인트를 익혔고 정경호 강사의 서브노트에 정부 보고서 및 기사 등을 보충하여 암기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IV. 제3차시험(면접시험) 준비

저는 2차 결과 발표 이후 학교 고시반에서 준비해주신 프로그램만 따라가며 3차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학원, 합격생 멘토링 등 다양한 준비방식이 있겠으나 면접준비 과정

이 약 3주에 불과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룹토의(GD)가 시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굳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면접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면접방식에 익숙해졌고, 준비해온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친구들과 PT 작성 스터디를 구성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PT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던 것은 딜레마 등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을 따로 정리하였는데,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V. 마치며

5년간의 수험생활을 5장 이외의 짧은 글로 정리하다보니 글이 다소 불친절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노력하였고, 제가 조금 지칠 때마다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가족들과 같이 공부하고 응원해준 친구들의 도움이 모두 합쳐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터널의 끝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